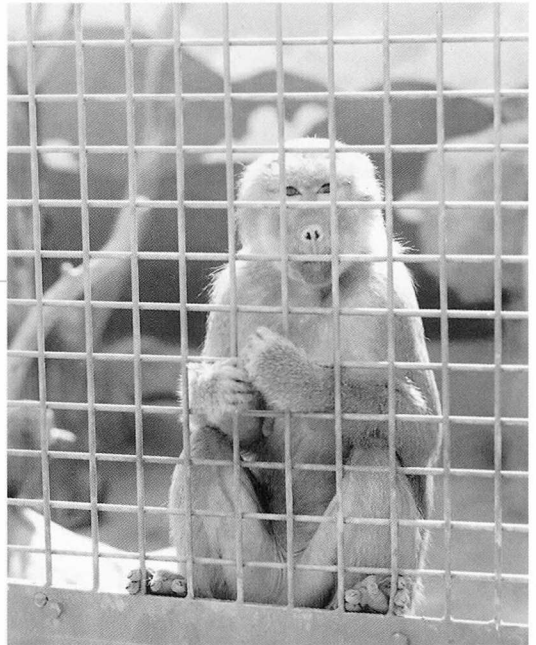


인간의 지배욕이 동물의 야생성을 제거해왔다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갈등

김수일 | 한국교원대 생물교육과 교수

사람도 본시 침팬지 같은 유인원에서 분화돼 약간의 육류를 먹는 잡식성 동물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도구를 다루기에 알맞은 양손이 있고, 불을 다룰 줄 알았다. 그때부터 사람은 동물들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한 종복으로 삼기 시작했다.



인간의 편의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세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호응을 얻고 있어 다행이다. 사진은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

사람은 과연 만물의 영장인가. 20세기 초반에 들어 생태학, 동물생태학의 선구자들이 이와 같이 고민해왔던 흔적이 뚜렷하다. 북미주 동물생태학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으로 알도 레오폴드 교수는, 그의 수상록 《모래동네 연감》에서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땅에 대한 도의론'을 제시했다. 사람이 생태계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복자가 아닌, 다만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제안한 것이었다. 이 글의 들머리에서 그는 그리스의 명장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벌어진 일화를 예시하고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부정했다고 의심되는 시녀 열두명을 밧줄 하나에 목매달아 죽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서,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오디세우스가 결코 몰상식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시녀들이 단지 소유물에 불과했던 시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손을 사용하는 능력이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로 만들어

땅이건 동물이건 또는 자연의 어떤 생명체라도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나면, 고유의

권리나 자유의지가 박탈되게 마련이다. 사람의 소유욕과 지배욕은 일찍부터 견잡을 수 없이 커져서, 자연환경과 그 안에 고유한 생명현상들까지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사람 가운데 특히 밖에 나가 먹을거리를 벌어들이는 남성들의 소유욕과 정복주의는 대단하다. 그것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사람도 본시 침팬지와 유사한 유인원에서 분화돼 곡식이나 나무열매 또는 물고기 같은 약간의 육류를 먹는 잡식성 동물이었다

는 설에 설득력이 있다.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더라도 다른 큰 동물을 효과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도구를 다루기에 알맞은 양손이 있고, 급기야는 다른 동물이 두려워하는 불을 다룰 줄도 알게 된 것이다. 먹을거리를 거둬들이는 데 좀더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어내고 몸집이 큰 동물까지도 많이 잡아들일 수 있게 됐다. 초식 또는 잡식동물이었던 사람이 매우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사냥을 잘하는 남자들은 남보다 더 우쭐댈 수 있는 특권마저 생겨나게 됐을 것이다. 살려서 잡아들인 동물 가운데 쓸모 있는 것들은 가둬두거나 길들여 소유하고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기도 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계급 격차는 확연해지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그야말로 자연스레 살아가던 야생동물이 사람이 만든 철창에 갇히거나 길들여지고 나면, 그 동물의 권리나 자유의지는 박탈되는 게 당연해진다.

인간중심주의가 자연과 야생의 가치 배제해

한편, 사람이 공들여 탐구하는 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행위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려는 '도의론'적 사고에서, 전통적으로 사람 이외의 생명체를 고려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 '의무론'의 대표자로 꼽히는 데카르트는 '사람은 생각하므로 존재' 하며, 여타의 동물들은 '똑딱거리는 시계' 처럼 태엽이 감긴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동물들은 도의론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자연과 야생에 대해서도 '인간중심주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알도 레오폴드 교수는 또 그가 애리조나주 야생관리 책임자였던 시절, '늑대 소탕령'을 내렸던 실책에 대한 일종의 참회록으로 <산처럼 생각하기>라는 글을 썼다. 늑대 소탕령은 초식동물이며 수렵 대상 동물인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를 잡아 내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때문에 '카이베브' 일대 숲에는 사슴들이 지나치게 번성하게 됐고, 지역의 식물상마저 극도로 파괴되는 먹이사슬의 단절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포식동물인 늑대가 자연 생태계의 조절자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음을 고백했고, 그 사건은 그의 생태철학이 더욱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북유럽과 북미주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늑대 개체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물론 늑대처럼 위험한 동물을 왜 복원해야 하느냐는 목축, 낙농업자들의 비난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복원 노력은 그 동안 사회적 인식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얼마 전 필자는 미국의 늑대복원 실무자 한 사람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해본 일이 있다. 그의 대답 역시 다소 철학적이며 우리와는 색다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었다.

첫째는 늑대와 같은 생태계 상위 포식동물의 자연과학적, 생태학적 가치를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멸종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이고, 둘째는 생태계 먹이사슬과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늑대 고유의 유전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유난스럽게 늑대를 흉포하고 없어도 될 나쁜 동물이라고 여기며, 이런 자연스런 늑대의 생존방식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과 편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포악한 범죄자라 해서 인류 전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던지기도 했다.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동물의 고유 특성을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잣대로 단죄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사람의 이해 관계에 따라 동물의 살 권리 박탈해

가축을 제외하고 사람보다 더 큰 몸집의 다른 야생동물들은 이제 동물원과 서커스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후손들을 가르친다. 자연계의 생명현상이 좀더 존중되지 않고서는 생태계의 균형과 기능이 유지될 수 없음을 가슴과 피부로 실감하더라도 자연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동물이 자연스레 살아갈 권리와 자유의지를 사람마다 청지기 정신으로 돌볼 수 있을 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자연계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원리를 보더라도 그렇다. 태양광선과 지구상의 물과 대기가 광합성 식물에 의해 최초의 먹을거리로 변환한다. 물 속에도 식물이 있고,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갯가지 크고 작은 물고기와 동물들도 있

다. 이들의 연결고리가 훼손되면 물은 부영양화로 오염되고 생명현상의 터전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호랑이와 늑대가 사슴을 먹더라도 사슴의 생존은 식물 먹이를 통해 지속되게 마련이다. 먹이사슬이라는 기묘한 연결고리를 통해 자연계의 에너지가 순환하고, 지구 위의 생명현상이라는 시계가 태엽의 힘에 의해 똑딱거리듯 유지되고 있다. 알고 보면, 지구상의 생명체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도 되는 것이 없을진대, 사람의 이해관계라는 짧은 안목으로 많은 동식물의 살 권리를 박탈해가는 게 현실이다.

야생의 세계는 독립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존중돼야

응용곤충학 분야에서는 한때 탐구 대상인 곤충을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주로 연구해

왔다. 효과적인 살충제를 개발해 식물 '해충'을 방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가 그것이다. 그런데 만일 모든 종류의 식물 병해충을 죽일 수 있었다면 어떤 세상이 왔겠는가. 곤충의 도움으로 씨앗과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모두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농작물 또한 수확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곤충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개구리, 뱀, 박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개구리나 쥐를 먹고 살아가는 뱀, 도마뱀 같은 파충류도 사라지게 되고 이어서 새나 짐승들도 차례로 사라져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자연환경을 단편화, 단순화시키는 일이나 야생의 생물서식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도 생물다양성의 붕괴를 자초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부류의 동물은 희귀하기 때문에, 혹은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태학적 사고는 자연계의 생명현상을 존중할 것과 다양한 생물이 자연스레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서식환경이라도 보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전 또한 단순한 측은지심에서가 아닌, 그들 고유의 생활방식을 존중함으로써 생태계의 기능과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람을 위해 야생동물들을 가축화하고 결국 희생시키는 구조가 아닌, 이 둘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라야 지구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껏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입으며 생을 연장해온 인류는 다양한 생물의 존속을 위해, 다시금 넉넉한 마음과 노력으로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보살피나가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명현상 존중이 바로 최근 생태학의 핵심논리며, 다행히도 이런 논리는 점점 더 공감과 힘을 얻어나가고 있다. ■

김수일 교수는 건국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원대 생물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저어새> <쉽게 찾는 우리새> 등을 펴냈다.